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황 현 주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영아관련 변인(성, 월령, 기질)과 어머니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으로 나누어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변인들이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유의표집 하였다(417명). 자료분석은 이원변량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성, 기질, 월령과 같은 영아특성 변인 보다는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실행모델과 같은 어머니관련 변인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회귀모형에 영아특성 변인과 어머니관련 변인을 투입한 결과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27%를 설명하였다. 반면에 영아의 성과 월령, 모의 결혼만족도 변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애착에 대한 변인들 간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어머니 애착, 정서적 유대감, 전생애 애착, 양육자의 민감성, 영아의 기질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강사 (E-mail : urieunbin@korea.ac.kr)

2)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I. 서 론

애착은 이제 영아가 영유아기에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정적인 유대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낮가림, 분리불안과 같이 주 양육자에 대한 영유아의 행동유형과 행동체계로 제한하여 사용하여 온 초기 애착 개념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낮선상황 외에 다양한 측정도구의 개발로 이제 애착은 인생의 초기에서만 형성된다는 인생초기 관점에서 벗어나 전생애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 즉 “보호기능”을 매개로 한 단일 방향적인 애착 개념에서 벗어나 자녀에 대한 부모 편에서의 애착과 같이 “결속”을 매개로 한 상호방향적인 애착개념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Beal, 1991; 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inde, 1979; Lamb, 1974;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Müller, 1993, 1994)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애착관련 연구는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기존의 애착연구가 주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Bowlby와 Ainsworth가 애착을 한 개체가 자기 자신 보다 더 강하거나 현명하게 지각되는 타 개체와 맺어 가는 사회적 관계, 즉 생존을 위한 보호기능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인애착척도의 개발로 애착의 전생애적 개념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애착연구는 부모, 교사와 같이 성인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애착은 더 이상 아동 편에서의 애착으로만 한정

되어 있지 않다. 애착은 특정한 두 사람 사이에 발달하는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정서적 유대감, 즉 결속이며,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강하게 서로를 향하고 접촉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나 바람이기 때문이다(Beal, 1991; Shaffer,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같은 한 방향에서의 애착 개념에서 벗어나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지칭하는 양방향적 개념으로 확대한 Denham과 Moser(1994)의 주장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이러한 양방향적인 애착개념을 토대로 하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결속이며, 종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영아에 대한 헌신적인 보호로 나타난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학자들마다 어머니 애착(maternal attachment), 어머니-영아 애착(mother-to-infant attachment), 모아애착(mother-and-infant attachment),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mother's attachment to infants), 그리고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영아,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동물행동학자인 Hinde(1979)이다. 그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쌍 프로그램의 한쪽으로서 「애착」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양육자의 민감성」의 개념으로 대신하였던 Ainsworth 당시에, ‘애착’이라는 용어를 아동의 행동체계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성하는 사회적 유대(social bond)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Hinde는 애착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적 토대인 유대(bond)가 친자, 부부, 암수 등과 같

은 양자(dyadic) 관계에서의 결속을 의미하는 동물행동학적 용어임을 지적하면서, 유대는 무엇보다 양쪽의 두 개체에게 내재된 양 방향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고유한 속성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대의 이러한 특징에 의해, 애착의 개념은 어머니에 대한 아동 쪽에서의 애착에서 나아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자녀 편에서의 애착만을 애착으로 바라본 기존의 애착이론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Ainsworth가 볼티모어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양육자의 민감성’이다(Ainsworth & Bell, 1977). 애착을 부모의 양육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아동 내의 조절체계로 제한하였던 Ainsworth는 영아 애착체계와 상대되는 개념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설명하기 위해 ‘양육자의 민감성’을 제시하였다.

Ainsworth와 동료들이 설명한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만 몰입되어 있는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둘째,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들을 적절히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반응은 영아가 좌절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이미정(1998)은 Ainsworth와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신호에 대한 지각(awareness)과 정확한 해석(interpretation), 반응의 즉각성(promptness), 반응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등의 4개 영역을 부모의 민감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Ainsworth가 제시한 양육자의 민감성은 “양육자의 민감성”이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만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영아 주도적인 애착행동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부모-자녀 애착은 아동보다 부모에게 먼저 나타난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아와 대화를 나누고, 태동과 같은 태아의 존재감을 통해 아기에게 애착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Bloom, 1995; Cranley, 1981; Fuller, 1990; Grossman et al., 1985; Müller, 1993). 따라서 Ainsworth가 제시한 양육자의 민감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속성을 일부 설명하고 있지만, 어머니 애착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양육자의 민감성 외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¹⁾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에 있어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박성연, 1989)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과 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양육태도는 애착과 같이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생물학적인 토대 보다는 자녀의 발달과정과 함께 지속되는 훈육방법과 행동이기에, 특별히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적 결속을 강조한 어머니의 애착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실제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üller의 모애착 척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와 상관관계를 살펴 본 황현주와 정옥분(2006)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애착 척도와 모애착

1) 학자에 따라 양육태도와 행동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육태도와 행동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다

척도와와의 상관(.79)이 어머니 애착 척도와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와와의 상관(.51)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서로 유사하지만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구별된 구성개념임을 입증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영아애착, 즉 양육자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애착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애착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인식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적 결속으로 인식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있다(김기영, 2000; 김봉선, 1994; 방경숙, 2000; 신현정·박영주·강현철, 2004; 임숙빈, 1996; 한규은, 2001; Beal, 1991; Becker & Becker, 1994; 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ock, McBride, & Gnezda, 1989;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태아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신생아 간의 조기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애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반면 아동학과 같은 인간발달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진 국내의 어머니 애착연구는 유은희와 박성연(1989)이 성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착연구가 어머니의 자녀애착은 소외된 채, 자녀의 어머니 애착으로만 진행되어져 온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초기경험, 특히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는 영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인 애착의 질이 표상을 통해 전생애 동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기존의 단일 방향 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애착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연구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은 애착형성에 대한 민감기(sensitive period)의 존재 유무와 함께, 만약 민감기가 존재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것이다. Klaus와 Kennel(1982)은 특히 출생 후 몇 시간이 어머니가 영아에 대한 결속을 형성하는 민감기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출생 직후를 어머니와 영아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고된 과정을 견디는 것은 자녀의 양육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영아에 대한 강한 정서적 결속, 즉 애착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입양을 한 양부모들의 자녀애착을 살펴 본 Singer와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는 비록 신생아 때 초기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건강하게 자녀애착을 형성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와 신생아와의 초기 접촉 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살펴 본 Goldberg(1983)에 의하면 초기접촉 효과는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신생아를 출산 직후 9일 동안 관찰한 결과, 신생아와 초기부터 접촉한 어머니는 통제집단 보다 단지 3일간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다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그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출산 직후 어머니와 신생아가 갖는 초기 접촉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ode와 동료들(1981)은 질병과 미숙아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직후 바로 몇 주 동안 입원하였던 영아(12-19개월)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영아애착을 살펴본 결과, 71%가 어머니에게 안정애착 하였으며, 이 수치는 신생아 때 입원하지 않은 통제집단 영아의 안정애착 수치(66-70%)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초기접촉은 애착발달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출산 직후 어머니가 신생아를 안고, 어머니의 심장 박동소리를 신생아에게 들려주며 수유하는 등의 직접적인 초기접촉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출산 후 잠시 동안 형성되기 보다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서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유대관계이다(Mercer & Ferketich, 1994).

초기접촉 외에 애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은 영아의 기질이다. 기질과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즉 영아의 애착발달에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이 주요 변인이듯이 영아의 반응적 행동 양식인 기질은 어머니의 애착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과, 그리고 이와 달리 애착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영아의 기질이 애착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영아애착 분류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력과 그리고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상호작용적으로 형성해 가는 조화의 적합성에 대한 기질의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Kagan, 1994; Seifer & Schiller,

1995). 먼저 기질의 영향력을 주장한 학자들은 기질적 특성이 활동수준과 마음의 진정능력(soothability) 또는 혼란성(distractibility) 등을 내포하기에, 기질이 낮은 상황 실험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Kagan, 1994; Thompson, Connell, & Bridges, 1988). 즉 낮은 상황에서 C 유형(저항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들의 경우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때문이 아니라 애착유형을 평가한 낮은 상황 자체에 대한 영아의 과민반응, 즉 영아의 기질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기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조화의 적합성 문제로,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발달해 가는 애착관계 유형에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패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어머니가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의 기질은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양육이라 할지라도 영아의 기질에 의해 영아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까다로운 기질 아동은 쉬운 기질 아동 보다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일지라도, 어머니가 보다 여유 있고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이는 보다 적응적인 아이가 된다. 이와 같이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다(박응임, 1995; 최영희, 1995; 홍계옥, 1994; Seifer & Schiller, 1995; van den Boom, 1995).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입장에서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주어 애착체계 기능의 모델 내에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질로 애착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Bates와 동료들(1985)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과 낯선 상황에서 측정된 영아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질의 애착 유형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살펴 본 이영환(1993)과 타인양육 영아의 애착을 살펴 본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도 기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질과 애착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기질 외에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변인으로는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월령(개월 수)이 있다. 그러나 성별과 월령은 애착연구에서 기질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어진 변인은 아니다. 낯가림, 분리불안과 같은 애착의 행동유형은 생후 6-18개월경에 나타나는 보편적이며 생물학적인 현상이기에, 성과 개월 수에 따른 차이는 주요 분석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최근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애착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기 애착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주, 2001).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는 기질, 성차와 같은 아동 변인 외에, 왜 어떤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 영아에게 더욱 정서적으로 밀접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어머니 편에서의 변인이 있다. 특별히 어머니의 애착에 있어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들은 오랫동안 발달심리와 아동학에서의 주요 문제였다. 최근까지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은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는 주장이다(Vasta et al., 1999).

한편, 어머니 자신의 내적 실행모델 외에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같은

어머니 관련변인이 있다. 이러한 어머니 관련 변인은 최근 들어 애착의 생태학(ecology of attachment)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가족과 사회의 네트워크가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생후 1년 간 영아가 경험하는 애착의 질은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만족도에 의해 예측되었다(Bretherton, 1995). 또한 국내의 애착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남편의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그리고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들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의 영아애착이 영아 관련변인(성, 월령, 기질)과 어머니 관련변인(어머니 자신이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 관련변인(성, 월령, 기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어머니 관련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 관련변인(성, 월령, 기질)과 어머니 관련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아(1-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지역의 10개 구(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중랑구, 양천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와 인천시,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 등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유의 표집 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 43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설문지 회수율은 87%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여 417부의 자료가 최종 선택되었다.

본조사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영아(1-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연령 범위는 22세에서 42세까지였으며, 이 중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어머니가 216명(51.8%)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23세에서 47세의 범위였으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31세에서 35세 사이가 224명(53.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대졸」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형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가 165명(39.6%), 비취업모가 252명(60.4%)으로,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취업을 한 어머니 보다 다소 많았다.

측정도구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척도(KMAI)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황현주와 정옥분(2006)이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척도(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KMAI)를 사용하였다. KMAI는 1개월에서 24개월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황현주와 정옥분은 애착측정에 있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척도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애착관련 문헌과 한국 전통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반분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과정과 일련의 타당도 과정(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을 통해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MAI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chafer의 MBRI와 Müller의 MAI 두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KMAI의 공인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분석 결과, 총 8요인(긍정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분리불안, 보호, 결속, 냉담, 기대감)이 추출되었다. KMAI는 총 50문항(5점 척도)으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값은 본 연구에서 .94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척도(IBQ)

영아의 기질 측정은 위영희(1994)가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Rothbart(1988)의 영아행동질문지(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12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Thompson과 동료들(1988)의 연구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함으로써, 영아와 유아의 기질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IBQ는 6개의 하위영역에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영희(1994)가 요인분석을 통

표 1. 연구대상자(어머니)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N=417)

어머니(연구 대상자)			배우자		
변인	내용	빈도	변인	내용	빈도
연령(만)	21-25세	12 (2.9%)	연령(만)	21-25세	1 (0.2%)
	26-30세	123 (29.6%)		26-30세	53 (12.7%)
	31-15세	216 (51.8%)		31-15세	224 (53.7%)
	36-40세	59 (14.1%)		36-40세	115 (27.6%)
	41세 이상	7 (1.7%)		41세 이상	24 (5.8%)
교육수준	중 졸	3 (0.7%)	교육수준	중 졸	2 (0.5%)
	고 졸	118 (28.3%)		고 졸	77 (18.5%)
	대 졸	268 (64.3%)		대 졸	266 (63.8%)
	대학원 이상	28 (6.7%)		대학원 이상	72 (17.3%)
취업유형	가정주부	252 (60.4%)	취업유형	무 직	0 (0.0%)
	학 생	2 (0.5%)		학 생	9 (2.2%)
	관리 · 경영직	1 (0.2%)		관리 · 경영직	11 (2.6%)
	전문직	9 (2.2%)		전문직	61 (14.6%)
	사무직	127 (30.5%)		사무직	226 (54.2%)
	자영업/기술자	24 (5.8%)		자영업/기술자	102 (24.5%)
	단순노동직	1 (0.2%)		단순노동직	4 (1.0%)
	기 타	1 (0.2%)		기 타	4 (1.0%)

해 6개의 구성요인(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성,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 등) 38문항으로 수정함으로써,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혀 안했다”에서 “항상 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8문항으로 수정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값은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어머니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척도(AAS)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Hazen과 Shaver(1990)의 성인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애착 척도(AAS)는 Ainsworth(1978)가 영아애착 유형으로 제시한 회피, 안정, 불안/양가 애착을 토

대로 만들어 졌으며,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이현미(1997)가 내용타당도 과정을 통해 총 16문항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미(1997)가 사용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1점, ‘매우 그랬다’는 7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112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현미(1997)와 정혜승(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의 α 값을 구한 결과 모두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Cronbach의 α 값도 .91이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척도(RKMSS)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과 동료들(1981)이 개발한 캔자스 부부 만족 척도(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양미선(2000)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캔자스 부부만족 척도 개정판(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 한다” 등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값은 양미선(2000)과 본 연구에서 모두 .91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척도

남편의 지지는 양미선(2000)의 「남편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미선(2000)은 Taylor(1985)의 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남편의 지지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등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지각한 남편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값은 양미선(2000)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모두 .9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료분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영아관련 변인(영아의 성, 월령, 기질)과 자신의 모에 대한 안정성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영아관련 변인(성, 월령, 기질)과의 관계

먼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5점 평정)은 냉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4점 이상이였다. 이 중 희생을 초월한 긍정적 정서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결속(4.48)과 접촉추구/접촉을 즐김(4.46), 보호와 기대감(4.28), 근접추구/분리불안(4.25), 그리고 자기희생적 온정(4.22) 순이었다.

다음에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 별 점수가 영아의 성과 월령, 기질 등과 같은 영아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417)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1 긍정적 정서	4.67	.38
2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4.46	.52
3 자기희생적 온정	4.22	.47
4 근접추구(분리불안)	4.25	.54
5 보호	4.28	.51
6 결속(일치성)	4.48	.45
7 냉담	1.94	.58
8 기대감	4.28	.57

있는지 알아보았다. 영아의 월령에 따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의 개월 수를 12개월 이전과 이후로 나눈 후 살펴보았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영아의 성별과 월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영아의 기질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17, p<.01$). 어머니 애착과 기질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기질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정서($r=.20, p<.01$) 및 주의 전환성($r=.22,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관련 변인 중 영아의 성별이나 월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 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관련 변인들(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신체적·정서적 지지,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관련 변인 중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와 같이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r=.22, p<.01$)와 배우자의 지지($r=.26, p<.01$) 변인 모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참조).

어머니 관련 변인들 중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과 영아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두 변인 사이의 상관은 다른 어머니 관련 변인들(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표 3.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영아기질과의 관계

(N=417)

	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성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	전 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20**	.07	.07	.01	.22**	-.08	.17**

** $p<.01$

표 4.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과의 관계

(N=417)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전 체
		배우자의 신체적 지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22**	.24**	.27**	.26**

** $p<.01$

표 5.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N=417)

	긍정적 정서	접촉 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 추구	보호	결속	냉담	기대감	전 체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41***	.37***	.44***	.35***	.35***	.39***	-.25**	.28**	.48***

** $p < .01$ *** $p < .001$

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r = .48, p < .001$).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요인들 중 특별히 어머니의 「자기희생적 온정」이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r = .44, p < .001$)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도 어렸을 적 형성한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높은 상관($r = .41, p < .001$)을 나타냈다. 즉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일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한 자기희생적 온정이 높았으며, 자녀양육을 고생이나 어려움으로 인식하기보다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냉담」은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과 역 상관($r = -.25$)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어머니관련 변인들(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모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관련 변인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어렸을 적에 형성한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이 현재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된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변인 보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아 관련변인과 어머니 관련변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애착에 미치는 설명력

회귀모형에 영아관련 변인과 어머니관련 변인을 투입한 결과, 영아관련 변인에서는 유일하게 영아의 기질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관련 변인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과 배우자의 지지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한편 영아관련 변인의 성과 월령, 그리고 어머니관련 변인의 결혼만족도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설명에 있어 유의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투입된 변인들 중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가장 높은 설명력(23%)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의 지지(3%)와 자녀의 기질(1%)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설명하였지만, 설명력은 어머니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나타났

표 6. 영아관련 변인과 어머니관련 변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 (N=417)

모형	B	Beta	R	F	R ²	R ² 변화량
(상수)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169.13 .66	.48	.48	125.19***	.23	.23
(상수)	155.79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및 남편 지지	.60 .27	.43 .17	.51	73.35***	.26	.03
(상수)	143.56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및 남편 지지 및 영아 기질	.59 .27 .11	.42 .17 .10	.52	51.36***	.27	.01

***p<.001

다. 또한 어머니 애착에 대한 남편의 지지와 영아기질 간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영아의 기질(1%)보다는 남편의 지지(3%)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보다는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아의 성과 월령, 결혼만족도 등의 변인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의 지지, 영아의 기질 순서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연구 이후 전 세

계적으로 다양한 애착연구가 진행되고 영아기 이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애착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지만, 이들 연구와 척도 대부분은 양육자나 교사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아동 편에서의 애착이 아닌 어머니 편에서의 애착, 즉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어머니 애착 관련 문헌과 연구들은 아동발달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모애착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간호학을 중심으로 더러 있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출생 직후를 어머니와 영아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출산 직후나 생후 초기에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애착은 상대적으로 보다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어머니-자녀 간의 관계이며, 아울러 누적적이며 적응적인 과정이다(Brockington, 1996; Sander, 1962, 196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개월까지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아관련 변인과 어머

니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에 대한 한국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관련 변인과 관계가 없거나 미미하였다. 즉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질과는 미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어머니관련 변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현재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 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어머니 애착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요인들 중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희생적 온정」과 「긍정적 정서」가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영아특성 변인(성, 연령, 기질)과 배우자 변인(남편의 지지, 결혼만족도),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변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영아의 기질과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실행모델, 즉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는 설명력에 있어 미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이 전생애 동안의 발달과정이며 아울러 성인기와 노년기의 정서

적 기초로 확대되어 간다는 Main과 동료들(1985)의 주장을 지지한 결과이다. 비록 애착의 전생애적 관점과 세대 간 전달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아동 편에서의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애착연구로 이루어졌지만, 애착에 대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가 형성한 애착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의 세대 간 전달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Steele, Steele & Fonagy, 1996). 따라서 Ward와 Carlson(1995)은 양육자의 민감성 보다 오히려 어머니의 실행모델이 영아의 애착 유형에 더 좋은 예측변인임을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어머니의 실행모델이 영아의 애착유형 뿐만 아니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있어서도 더 높은 예측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성, 기질, 연령과 같은 영아특성 변인 보다는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실행모델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 보다는 어머니의 실행모델, 즉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애착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응임, 1995; 최영희, 1995; 홍계옥, 1994; Seifer & Schiller, 1995; van den Boom, 1995)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기질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영환(1993)과 양연숙(2000), 그리고 Bates와 동료들(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결과이다.

즉 영아관련 변인 보다는 어머니관련 변인이 더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시작이 어머니가 아이였을 때, 즉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는 자녀 편에서의 애착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서도 주요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Mercer & Ferketich, 1990, 1993). 그러나 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well & Feldman, 1991; van IJzendoorn, 1992, 1995),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현미, 1997; 전효정, 2003)와 이와 달리 자녀양육행동이 부모의 애착 내적 실행 모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박응임, 1995; 이영환, 1993)가 함께 제시되고 있어, 이들 차이가 문화적 차이인지 측정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애착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측정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닌, 상호 관련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애착은 생물학적 토대 위에 형성된 범문화적이며 보편적인 정서적 결속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이지만, 애착을 구성하는 구성요인 내에 생물학적 보편성과 문화적 독특성이 함께 공존한다. 즉 애착은 모든 인간 종에게 내재된 생물학적인 속성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마다 애착에 부여하는 가치, 혹은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할 때 설정하는 목표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상호 간의 반응 양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애착연구는 애착에 대한 문화적 차이인지 또는 애착측정방법의 문제인지와 같은 양자택일적인 관점이 아닌 이들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애착에 있어 영아의 개월 수(12개월 이전과 이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애착척도가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그리고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적절함을 나타낸다. 이는 어머니애착이 생애 초기에 잠시 동안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보다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유대관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어머니 편에서의 애착을 다루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Bowlby와 Ainsworths는 아동과 주 양육자 두 사람이 공유하는 쌍방향 프로그램의 한쪽을 「애착」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양육자의 민감성」으로 개념화하였지만, 동물행동학에서 친자, 부부, 암수 등의 밀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유대(bond)」는 양쪽의 두 사람에게 내재된 고유한 속성이기에 애착과 양육자의 민감성보다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애착을 모두 포함하는 애착의 양방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실행모델, 즉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 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영아와 주 양육자간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를 넘어, 그리고 세대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표집 과정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표집이 아닌, 서울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른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연구대상의 편향적 특성이 우려된다.

한편 어머니 애착에서 냉담을 제외한 하위 요인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에 대한 한국 어머니의 애착이 비교적 높다는 해석과 동시에, 척도의 선별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발달 시기보다 주 양육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영아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과 아울러 연구대상의 편향성으로 인한 결과라는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자녀의 기질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은 낮았다. 그러나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적 차이 외에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는 영아의 기질이다. 기질과 애착연구는 영아의 기질이 영아와 양육자의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영아애착이 아닌 어머니의 애착과 기질연구는 지금까지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기에,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 애착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영희(1994)가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Rothbart의 영아행동질문지(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를 사용하여 기질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기질의 유형화가 아닌, 6개의 하위 요인(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성,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애착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등과 같은 기질의 긍정적/부정적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질과 어머니 애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개인차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앞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즉 민감성과 같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행동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한 내적 실행모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실행모델 외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추후 연구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기영 (2000). 태교관점 임부교실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선 (1994). 산욕기 초기산모의 영아돌보기 지식 및 모아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주 (2001).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용임 (1995).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경숙 (2000). 영아기 어머니 역할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현정 · 박영주 · 강현철 (2004). 산욕기 어머니의 모아애착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4(3), 504-514.
- 양미선 (200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 (2000). 영아의 타인양육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 ·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 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위영희 (1994). 영아의 사회적 참조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 (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 (1993). '낮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미 (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빈 (1996).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효정 (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혜승 (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1995). 유아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187-196.
- 한규은 (2001). 모성 자존감 및 모성 민감성과 모아 애착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미숙 (2004). 아동 부모교육 상담을 위한 부모 역할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 (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현주 · 정옥분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 애착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 발달학회지*, 13(3), 57-78.
- Ainsworth,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7). Infant crying and maternal responsiveness: a rejoinder to Gewirtz and Boyd. *Child Development*, 48, 1208-1216.
- Ainsworth, M. D. S., Blehar, M.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tes, J.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In Bretherton, I., & Waters, E.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67-193.
- Beal, J. A. (1991). Methodological issues in conducting research on parent-infant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 11-15.
- Becker, G. & Becker, C. (1994) The maternal behavior inventory: measuring the behavioral side of mother-to-infant attachmen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2), 177-194.
- Bialoskurski, M., Cox, C. L., & Hayes, J. A. (1999). The nature of attainment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Pediatric Neonatal Nursing*, 13(1). 66-76.
- Bloom, K. C. (1995).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behaviors in pregnant adolescents. *Nursing Research*, 44, 284-289.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2th* (Vol.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etherton, I. (1995).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 Brockington, I. (1996). *Motherhood and mental health*.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ter-Jessop, L. (1981). Promoting maternal attachment through prenatal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6, 107-112.
- Cassidy, J. (1999).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J. Cassidy, & P. R. Shaver,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Y.: Guilford Press.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 281-284.
- Cranley, M. S. (1992). Response to "A critical review of prenatal attachment research."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6, 23-26.
- Crowell, E. M., & Feldman, S. S. (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97-605.
- Denham, S. A. & Moser, M. H. (1994) Mother'

- attachment to infants: relations with infant temperament, stress, and responsive maternal behavior.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98, 1-67.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8, 496-506.
- Fuller, J. R. (1990). Early patterns of maternal attachment.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1, 433-446.
- Goldberg, S. (1983). Parent-infant bonding: Another look. *Child Development*, 54, 1355-1382.
- Goldsmith, H. H., Buss, A. H., Lemery, K. S. (1997). Toddler and childhood temperament: Expanded content, stronger genetic evidence, new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891-905.
- Grossman, K., Grossma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33-256.
- Hinde, R. A. (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ships*.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Hinde, R. A. (1982). *Ethology: Its nature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sciences*.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inde, R. A. (1983). Ethology and child development. In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biology*. N.Y.: Wiley.
- Hock, E., McBride, S., & Gnezda, M.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N.Y.: Basic Books.
- Klaus, M. H. & Kennell, J. H. (1976). *Maternal infant bonding - The impact of early separation or loss on family development*. St. Louis MI: C. V. Mosby.
- Klaus, M. H. & Kennell, J. H. (1982). *Parent-infant bonding*. St. Louis, M.O.: C. V. Mosby.
- Lamb, M. E. (1974). A defense of the concept attachment. *Human Development*, 17, 376-385.
- Main, M., Kaplan, N., & Ca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0). Predictors of parental attachment during early parent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268-280.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3). Predictors of parental attachment during early parent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268-280.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4). Maternal-infant attachment of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mothers during infancy. *Nursing Research, 43*(6), 344-351.
- Müller, M. E. (1993). The development of the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 199-215.
- Müller, M. E. (1994). A questionnaire to measure mother-to-infant attach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2*(2), 129-141.
- Rode, S., Chang, P., Fisch, R., & Sroufe, L. A. (1981). Attachment patterns of infants separated at birth.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26-636.
- Rothbaum, F., Weisz, J., Pott, M., Miyake, K., & Morelli, G. (2000). Attachment and cultur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55*(10), 1093-1104.
- Sander, L. W. (1962). Issues in early mother child interac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 141-166.
- Sander, L. W. (1964). Adaptive relationships in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3*, 231-263.
- Sears, R. R. (1963). Dependency motivation. In M. Jone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eifer, R., & Schiller, M. (1995). The role of parenting sensitivity, infant temperament, and dyadic interaction in attachment theory and assessment.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 Shaffer, D. R. (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4th)*. C.A.: Wadsworth.
- Singer, L. M., Brodzinsky, D. M., Ramsay, D., Steir, M., & Waters, E. (1985). Mother-infant attachment in adoptive families. *Child Development, 56*, 1543-1551.
-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 of mothers, fathers, and their infants. *Child Development, 67*, 541-555.
- Thompson, R. A., Connell, J. P., & Bridges, L. J. (1988). Temperament, emotion, and social interactive behavior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of attachment system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102-1110.
- van den Boom, D. C. (1995). Do first-year intervention efforts endure? Follow-up during toddlerhood of a sample of Dutch irritable infants. *Child Development, 66*, 1798-1816.
-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 76-99.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asta, R., Haith, M., & Miller, S. A. (1999).

- | | |
|---|--|
| <p><i>Child psychology: The modern science(3th)</i>. N.Y.:
John Willy & Sons, Inc.</p> <p>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i>Child Development</i>, 66, 69-79.</p> | <p>1 차원고접수 : 2006. 10. 01.</p> <p>수정원고접수 : 2006. 11. 23.</p> <p>최종게재결정 : 2006. 12. 05.</p> |
|---|--|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and Related Factors

Hyun Joo Hwang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attachment to their infa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7 mothers locat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s, two-way ANOVA, and a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boys and girls in terms of the mother's attachment to the infa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between the different age groups of the infant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a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was related to the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Third, a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was deeply related with the attachment security that the mother formed with her own mother during infancy.

Key words : mother's attachment, emotional bond, life-span attachment, caregiver's sensitivity, infant's temperament